

“5년만에 한국 활동, 제자리 찾은 느낌”

카라에서 배우로 변신한 강지영
JTBC '야식남녀'로 한국서 첫 주연
“고 구하라 언니에 미안한 마음뿐
엔젤리나 줄리처럼 액션 장르 도전”



5년만에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는 카라 출신 배우 강지영

“처음부터 ‘뺑’ 터지는 것보다 천천히 시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강지영이 이제 연기를 시작했구나’ 하면서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만족해요.”

2008년 걸그룹 카라의 막내 멤버로 데뷔한 강지영(26)은 배우로 변신해 최근 종영한 JTBC '야식남녀' 주연으로 활약했다. 그의 한국 활동은 무려 5년 만이다. 2014년 카라를 탈퇴한 뒤 일본에서 연기자로 전향했고, 지난해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국내로 복귀했다.

9일 광화문에서 만난 강지영은 “카라 시절부터 연기자를 꿈꿔왔다”며 일본에서 활동한 경험, 한국으로 돌아온 소감 등을 털어냈다.

“처음 일본에서 했던 연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오키(‘지옥선생 누베’)에 부겸의(‘하간바나-여자들의 범죄파일’)에... 한국어로도 편지 모를 어려운 단어를 일본어로 하는 것 때문에 애를 먹었죠. 카라 때부터 일본 활동을 해와서 일본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절과 대화가 됐어요(웃음). 그래도 좋은 시간이라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카라 활동이 멤버들, 스태프와 다 같이 만들어 낸 거라면 일본에선 혼자 노력하는 법도 배웠고 이뤄내는 성취감도 더 컸어요.”

일본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온 계기는 무엇일까. “활동 기간을 정해두고 일본에 간 건 아니었다”던 그는 “일본어로 연기하는 게 여유로워졌다고 생각하게 됐을 때쯤 한국어로 연기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일본에서 활동한다고 선언을 했으니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뭔가 해낸 뒤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커서 어쩌다 보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돌아올 땐 당연히 불안했어요. 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가 잊혔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여전히 알아봐 주시는 분도 있고, 팬들도 응원해줘서 감사해요. 한편으로 세월의 흐름도 많이 느껴져요. 아이들 친구들도 많아져서 아직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웃음). 대단하기도 하고, 다 예쁘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강지영은 '야식남녀'에서 계약직 에능PD 김아진으로 분했다. 그는 “에능PD라는 직업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계약직이라는 타이틀은 회사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상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김아진 캐릭터는 한국에서 신인 배우로 새롭게 도전장을 내미는 강지영의 현실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이기도 했다.

“아진과 70~80% 정도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몸 던지며 열심히 하는 아진이를 보며 많이 배웠어요. 상사 앞

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한 캐릭터라고 생각했죠. 시청률은 사실 많이 아쉽긴 해요.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 약간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에 출연하며 얻은 수확에 대해선 “한국에 돌아왔다는 안정감을 준 것 같다. 제자리로 돌아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와 강지영은 카라로 데뷔를 함께 한 각별한 사이다. 구하라가 “친언니 같았다”던 그는 “그냥 속상한 마음이 제일 크다. 미안한 마음도 크다. 사실은 아직 괜찮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괜찮아질 것 같지도 않다”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게 (구하라를) 위하는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카라 멤버들에 대해선 “드라마 보고 있다는 사진도 찍어 보내주고 연락도 왔다. 규리 언니, 승연 언니는 연기 경험이 있어서 ‘현장 쉽지 않으니 잘해라’ ‘잠 못 자니 건강 잘 챙겨라’ 같은 조언들을 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엔젤리나 줄리나 스칼릿 조앤슨처럼 강렬한 이미지의 액션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다. 가수 활동 계획은 없냐고 물어보니 “지금은 연기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배우로서 새로운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배우 재밌다’ ‘또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인상적인 배우가 되고 싶어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역시 남의 연애 구경이 제일 재밌다”

‘하트시그널3’ 2.4% 종영

일반인 출연자들의 잇따른 사생활 논란에도 끝까지 마음을 졸이게 만든 연애 리얼리티 예능 ‘하트시그널3’가 2%대 시청률로 종영했다.

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50분부터 2시간 넘게 방송된 채널A ‘하트시그널3’ 마지막 회 시청률은 2.407%(유료 가구)로 조사됐다.

남자 넷, 여자 넷의 일반인 출연자 중 박지현과 김강열, 서민재와 임한결이 최종 커플로 맺어졌다.

시그널 하우스에 청춘 남녀들이 같이 살며 호감을 느끼고, 연예인 예측단이 이들의 마음을 추리하는 ‘하트시그널’ 포맷의 힘은 시즌3에 와서도 견재했다.

모두의 첫사랑 같은 이미지의 박지현, 솔직하고 당당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이가흔, 두 여자 사이에

서 혼란스러워하는 천인우, 거침없는 애정 표현에 능숙한 김강열 등 네 명의 사각 관계는 어느 로맨스 드라마 못지않은 몰입도를 자랑했고, 시청자들은 각자 자신이 응원하는 커플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냈다.

다만 ‘하트시그널3’는 사전 검증이 어려운 일반인 출연 예능의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시즌이기도 했다.

이번 시즌에선 일부 출연자들이 학교 폭력과 학력 위조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휘말리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고, 한 남성 출연자는 과거 여성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방송 도중 뒤늦게 알려져 본인이 직접 사과했다.

‘하트시그널3’는 다음 주 스페셜 방송으로 끝으로 완전히 막을 내린다. 오는 15일 방송에선 출연자들의 시그널 하우스 후기가 담길 예정이다.

/연합뉴스



‘하트시그널3’

지니뮤직, 부활 김태원과 싱어송라이터 발굴

인디뮤지션 ‘비대면 오디션’ 진행

지니뮤직이 그룹 부활 리더 김태원과 함께 ‘비대면’ 오디션을 통해 인디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한다.

지니뮤직은 김태원과 함께 3개월간 인디 뮤지션 비대면 오디션 ‘김태원석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디션은 김태원이 비대면으로 지원자들의 음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록, 힙합,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 싱어송라이터 300여 명이 참여했다.

10일부터 오디션 과정을 유튜브 채널 ‘김태원클라쓰’에서 매주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지니엠을 통해서도 오디션 관련 에피소드를 접할 수 있다.

김태원은 “이번 비대면 오디션을 통해 싱어송라이터들과 음악적으로 교감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오디션 최종 우승자의 싱글 음반을 프로듀싱도 하고, 듀엣 공연도 마련할 계획”



부활 김태원이 인디 뮤지션 비대면 오디션 ‘김태원석함’을 소개하는 모습.

이라고 밝혔다.

지니뮤직 조흔 대표는 “앞으로도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가로 발굴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장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퀵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앞)
심전대봉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콜릿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뮤엄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신신 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만 복 당
동구 계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아)
무항생제 장어사육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리 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기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도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